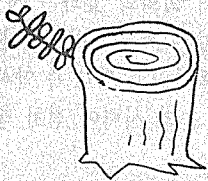


안경
의 종류 (7)

사시와 안경



이 상 육

사시는 한눈의 시선이 편위되어 있는 것, 즉 좌우안의 시축이 동일점을 향하지 않은 상태이다. 크게 나뉘어 어린이의 약 4% 정도가 사시이며, 그 종류는 내사시 외사시, 상사시 등으로 구분된다.

사시는 항상 나타나기도 하고, 어린이가 피로할 때만 나타나기도 한다. 생후 바로 나타나거나 어린이 때, 때로는 어른에서도 나타난다.

대개의 원인은 외안근의 불균형이다. 신생아 때는 외안근의 불균형으로 눈이 불안정하여 사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2~4개월 때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백일이 지나도 눈이 이상하면 신속한 안과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사시는 외안근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데 이런 불균형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남녀 비율은 비슷하며 그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다. 원시가 심한 경우에 내사시가 나타나기도 하며, 외안근은 머리에서 지배하므로 뇌성마비, 다운스 증후군, 뇌수종에서도 가끔 나타난다. 물론 뇌종양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백내장 등으로 인한 시력감퇴 때도 사시가 나타날 수 있다.

주 증상은 눈이 돌아가는 것이며 외사시 때는 햇빛에서 한눈을 감기도 한다. 입체시가 저하되기도 한다. 상사시 때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보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곧 유아기 때 안과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좋다.

사시는 한눈의 시선이
편위되어 좌우안의
시축이 동일점을 향하지
않은 상태이다.



어린이를 위한 여러가지의 시력검사 방법이 있다. 가능한 한 일찍 시력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늦게 발견하면 약시의 위험이 있다. 어린이는 코가 넓고 낮으며 또한 미간이 넓어서 보이는, 가성사시와 진성사시의 구분이 꼭 필요하며 이는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가능한 한 일찍 발견하여 즉시 치료하는 것이 약시의 방지이며 때로는 백내장이나 눈의 종양으로도 사시가 나타나므로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사시의 치료 목적은, 첫째는 시력의 보존, 둘째는 눈의 위치 교정이며, 셋째로 양안시의 회복으로 두눈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다.

사시의 치료방법은 어린이에 따라 약간은 다르나 각각의 어린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안과 의사가 선택하여 치료하게 된다. 대개 차안법, 안경사용 그리고 수술의 방법이 있으며, 사시와 약시 치료에서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없으며 시간이 많이 걸리나 의사와 환자와 보호자의 꾸준

한 협조 아래 치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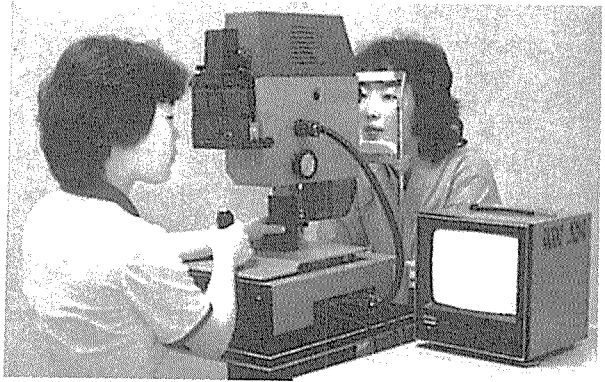
1. 차안법

모든 사시가 약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 차안법 즉 눈을 가려 주는 것이다. 차안법의 의의와 효과는 시력이 좋고 돌아가지 않은 눈을 가리므로서 시력이 나쁘고 주로 돌아간 눈으로 즉 약시안으로 보게 되어 그 눈의 시력이 점차 좋아진다는 것이다.

가리는 방법은 약시의 정도에 따라서 하루종일 또는 하루에 몇시간씩 하게 되며 치료효과에 따라 가리는 시간과 방법을 바꾸어 준다. 가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반창고로 완전하게 가려주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다.

가리는 시기가 빠를수록 즉, 나이가 어릴수록 효과가 크며, 늦을수록 효과가 적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어린이가 6~7세경 이후에는 약시가 고정되므로 가리는 효

사시는 가능한 한 일찍
시력검사를 통해
발견해야 한다.



과가 거의 없다.

2. 안경

안경이 때로는 사시안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특히 내사시 어린이가 원시인 경우에 효과가 있다.

안경사용이 어떻게 눈을 바르게 하나?

원시는 안축이 정상보다 짧아서 광선의 초점이 눈 뒤에 맺히게 된다. 따라서 광선의 초점을 망막에 정확히 맺게 하기 위해 눈이 과도한 조절을 하며, 이러한 과도한 조절에 따른 폭주 현상으로 눈이 안으로 몰리는 내사시가 나타난다. 안경사용은 이러한 조절을 막아 주므로서 눈이 안으로 몰리지 않게 된다.

안경을 쓰면 수술이나 가리는 것은 필요 없게 되는지?

안경사용 만으로 눈이 바로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경만으로는

완전하게 눈이 바로 되지 않는 수도 있으며 이럴 때는 수술이 추가로 필요하다. 약시가 있는 경우에는 안경사용과 동시에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안경을 안써도 잘 보이는데도 꼭 써야 하는지?

내사시 어린이에서 원시안경 사용은 눈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시력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안경은 꼭 필요하다.

언제까지 안경을 사용해야 하나?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눈도 같이 자라므로 원시는 점점 줄게 되어 원시 안경의 돛수도 점차 줄게 되고 대부분은 사춘기 이후에는 안경이 필요없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이가 근시 또는 난시인 경우에는 안경사용이 계속 필요하다.

3. 수술

사시교정수술은, 한눈 또는 두눈의 외안


근의 장력을 조정해 주는 안전하고 복잡하지 않은 수술이다. 외안근의 부착위치를 안구 뒷쪽으로 옮겨주는 후전술, 외안근의 일부를 떼어내고 앞으로 당겨 부착시키는 절제술을 주로 사용한다.

그외에도 외안근 부착 부위의 위치를 상하좌우로 변경시키거나 외안근의 부착부위의 뒷쪽에서 후고정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공물질을 외안근 절단면 사이에 이식시키는 새로운 수술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이는 특수한 상사시 교정에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번 수술로 눈이 바르게 된다. 그러나 사시의 종류 및 사시정도에 따라서는 한번 이상 여러번의 수술이 필요하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바르게 된 눈이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도 재수술이 필요하며, 과교정 및 부족교정의 경우에도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수술과 안경의 관계는, 안경을 쓰면 눈이 바로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시의 치료방법으로는
자안법, 안경사용, 수술 등이
있으며, 각각의 어린이에
맞는 방법을 안과의사가
선택하게 된다.

수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경을 써도 눈이 약간 돌아가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안경을 써야되며 안경을 벗으면 사시가 약간은 남아 있게 된다. 

〈필자=가톨릭의과대학 성모병원 안과과장〉

국민 식생활지침

- ① 여러가지 식품을 골고루 먹읍시다.
- ②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먹읍시다.
- ③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읍시다.
- ④ 과음을 삼갑시다.
- ⑤ 식사는 규칙적으로 즐겁게 합시다.